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5.(목) 배포 2026. 11. 5.(목) 16:50

고혈압·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,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전국 단계적 확대

- 기존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27년을 전환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며 연말 전환 실적 및 사업 추진 실적 등 평가하여 2028년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운영
- 신규 지정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는 2027년 상반기 선정하여, 7월부터 본격 가동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전국 확대 방향과 관련하여, 기존 센터의 전환 방식과 환자 안내 등 이행 방안을 밝혔다.

기존 19개 지역의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*(이하 '고당센터')는 현장 수요와 사업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7년을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전환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, 이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28년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(이하 '통합관리센터)로 개편·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. 이 기간에는 센터 명칭을 고당센터 그대로 사용하고 교육·상담, 알림 등 센터의 관리 기능은 유지한다.

이에 따라, **기존 등록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9월 30일 발표한 바와 같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방식으로 전환되며** 환자가 불편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, 고당센터(통합관리센터) 등과 안내와 지원을 병행한다.

* (사업 참여지역) **(서울, 1)** 성동구, **(경기, 5)** 광명시, 남양주시, 하남시, 안산시, 부천시, **(광주, 1)** 광산구, **(울산, 1)** 중구, **(세종, 1)** 세종시, **(강원, 2)** 동해시, 홍천군, **(전북, 1)** 진안군, **(전남, 3)** 목포시, 여수시, 장성군, **(경북, 2)** 경주시, 포항시, **(경남, 1)** 사천시, **(제주, 1)** 제주시

아울러, 전환 준비 기간 운영과 별도로, **신규 사업 지역은 2027년 상반기 공모**를 거쳐 선정하며, **2027년 7월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**(이하 '통합관리센터')**로 가동할 예정이다.** 전체 연령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·상담, 알림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그간 19개 지역, 30세 이상 대상 제공되던 건강서비스가 전연령 단계적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.

통합관리센터는 현재 30세 이상 고혈압·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 대상을 **전 연령**, 이상지질혈증 등 **질환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향**으로 추진한다.

고당센터 전환 방식과 시기, 환자 안내, 지자체 준비 지원 등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, 정부(중앙 및 광역지자체), 민간전문가, 기존 고당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(가칭)**'고당사업 개편 추진위원회'를 구성·운영할 계획**이다. 또한, 보건복지부와 실무 협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두 사업의 연계 현황을 점검·공유하고, 그 밖의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지역의사회, 개원의협의회 등 유관기관·단체 등과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계획이다.

지자체, 의료기관, 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 취지, 주요 변경사항, 환자 전환 절차,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, 기존 등록 환자와 의료진이 변경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·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.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"만성질환은 건강생활실천으로 예방과 조기진단,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"며, "이번 개편은 보다 많은 지역에서 모든 연령의 국민들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, **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**할 수 있도록 **노력**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	책임자	과 장	이연경 (043-719-7430)
		담당자	연구관	서승희 (043-719-7432)
		담당자	연구사	윤하정 (043-719-744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